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

A Study for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tion
on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김정숙
조교수 안옥희
교 수 한재숙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Lecturer : Jeong Sook Kim

Assistant Prof. : Ok Hee An

Prof. : Jae Sook Han

〈목 차〉

I. 서 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참고 문헌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and program by investigating the recognition perceived by Home Economics teachers.

We have done statistical analyses of 237 questionnaires on the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necessit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pplication of acquired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 and learning by practical experience, highly.

2) As for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the respondents place a high value on the field of Meal Management, Child and Family Studies,

Home resource Management and Consumer life, Clothing Management, and House Planning and Management, in the order.

3)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concepts are knowledges and understandings for the human beings.

1.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으며, 초기의 가사, 재봉, 수예 등 기술 습득을 위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5차 교육과정에서 이르기까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1,2)}.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의 구조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가정생활은 그 기능이나 내용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직업, 성차 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급속한 시대 변천에 따라 가정학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³⁾.

이러한 가정의 기능과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용의 증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인간성의 상실 등과 같은 국가·사회적인 요인들의 변화는 오히려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는 타교과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여 소홀히 취급되어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시간배당이나 이수대상 학년 등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을 볼 수 있고⁴⁾ 가정과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적절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학습시키고 이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⁵⁾, 현장에서 직접 가정과 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들

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교과내용에 대한 의식은 학생들이 가지게 될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의식과 학습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이나 가정과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정과 교사들의 요구반영은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식생활⁶⁾, 의생활^{8,10)}, 주생활^{11,12)}, 가정관리⁵⁾, 소비자교육^{14,15)} 등 가정과의 특정한 영역에 대한 연구와 가정과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및 일반인의 요구도^{16,19)}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가정과 교육과 교육과정 내용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게다가 21세기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개발될 제7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정과 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의 교육개혁 시대에 대비한 가정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가정과 교육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과 교육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가정과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밝힌다.
- 2)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요구도를 분석한다.
- 3)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

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고등학교 가정과의 교육과정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일차적인 준비는 교육 의도가 담겨진 교육 설계도 즉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결정하게 되므로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인격의 질을 형성하는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¹⁾.

공교육의 초기로 볼 수 있는 교수요목기에 있어서의 가정과 교육은 실업교과로서 가사, 재봉, 수예의 3과목으로 구성되어 그 후 6차(가정과의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기인 1969년에 한 번 더 개정이 있었다)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²⁾. 그러나 1995학년도(고등학교는 1996학년도)부터 실시된 제6차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남녀 공통 이수 및 단위 배당 등에 있어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중학교의 가정교과의 주당 시간 배당은 1학년 2시간, 2학년 1시간, 3학년 1시간(총 4시간:한 학생이 3년간 배울 가정교과의 주당 총시수)으로 제5차 교육 과정의 시간 배당(11-15시간)에 비해 거의 1/3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이수에 있어서 남녀 구분은 없어졌지만 기준 단위를 2단위 까지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입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과목에는 최저 단위를 배정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단위수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가올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지식사회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대 보급으로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computer를 통한 원격화상회의시설 등의 쌍방향통신이 일반화되는 등, 많은 업무를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system이 구축되므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근무시간의 자율화를 가능케 하여 우리의 생활에 여가시간을 많이 부가함으로써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생활을 추구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하게 해줄 것이라고 볼 때^{20,23)}, 앞으로의 가정은 더욱 더 우리 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가정과 교육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도 많은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2. 가정과 교육 및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가정과 교육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의식에 관한 논문으로,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실제와 교사의 가정 및 개인생활 지각에 대해 조사한 박재옥²⁴⁾등은 교사들이 가정과 교육은 인간의 기초생활능력의 개발 교육이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은 조리실습이고 재봉학습은 싫어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Kliwer²⁵⁾는 Colorado 가정과 교사들의 식생활 영역에 대한 소비자교육의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정의 식비에 대한 예산 세우기, 식사 계획, 상표 읽기, 소비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혜진²⁶⁾은 서울시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의생활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연령, 혼인 상태에 따라 의생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사들의 출신학교(사범계, 비사범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은순¹¹⁾은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거주 지역의 주생활 실정과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교사가 근무하는 지역과 학교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연숙²⁷⁾은 중·고등학교 가정관리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 가정과 교사, 전공교사의 요구도 분석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가정관리 개념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원사용과 관련된 환경문제, 소비자 문제해결, 용돈쓰는 방법, 구매정보 획득 방법, 의사소

통 기술, 스트레스 원인 및 해결, 소비자, 권리의무, 자원 대체적 사용,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집안일 능률적 처리, 가정자원 보존, 청소년 여가활동유형 등 이라고 밝혔다.

가정과 교육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한 연구로는 미국, 일본, 자유중국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와 비교한 윤인경⁴⁾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이 논문에서 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영역이나 내용에서는 각국이 모두 정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인간발달 등의 영역이나 내용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은 소비자 교육, 일본은 아동, 보육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가정과의 특정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나 요구도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가정과 교육이나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가정과 교사들의 의식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상북도, 강원도 및 대구 시내의 가정과 교사들로서, 1995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지역의 교원연수원에서 각종 연수에 참가중인 가정과 교사들에게 자기 기입식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248부(82.7%)를 회수하였고 부실기재된 질문지 11부를 제외한 23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로 제 6차 교육과정¹⁾과 Takeda¹⁹⁾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대구시내의 가정과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각 영

역의 전공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 받아 최종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10문항,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18문항,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의식 40문항 및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식 2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 형태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은 3점 Likert척도로,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의식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의식 정도가 강하고, 또한 내용에 대한 필요의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3. 자료의 처리

본 조사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5.8세로 31세~40세가 125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교사가 195명(82.3%)으로 고등학교 교사보다 많았고 국·공립학교(53.1%),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사(58.6%)가 사립학교(46.9%),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사(41.4%)보다 약간 더 많았다.

교육경력에 평균 12.4년으로 6~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약 50%를 차지하였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교사가 180명(7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4%의 교사가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은 학생에 대한 영향면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의 주간 수업시수는 평균 17.6시간으로 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평균 주당 수업시수(중학교 18.52시간, 고등학교 16.05시간)²⁰⁾와 비슷하며 198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연령	30세 이하	62	26.3	수업시간 (주간)	10시간 이하	13	5.5	
	31-40세	125	53.0		11-15시간	34	14.5	
	41-50세	34	14.4		16-20시간	157	66.8	
	51세 이상	15	6.3		21-25시간	30	12.8	
	계	236	100		26시간 이상	1	0.4	
재직학교	중학교	195	82.3	수업 담당 학년	1개 학년	128	54.0	
	고등학교	42	17.7		2개 학년	71	30.0	
	계	237	100		3개 학년	38	16.0	
학교형태	국·공립	126	53.1	기정과 수업 이외의 담당 업무*	담임	115	48.5	
	사립	111	46.9		가정과 주임	31	13.1	
	계	237	100		양호실	11	4.6	
학교소재지	시	139	58.6		상담실	17	7.2	
	읍·면	98	41.4		음악	1	0.4	
	계	237	100		컴퓨터 교육	16	6.8	
교육경력	5년이하	45	19.0		특별학급지도	20	8.4	
	6-10년	51	21.5		일반 업무	102	43.0	
	11-15년	70	29.5		강의: 실습 비율	10:0	32	15.5
	16-20년	30	12.7			9:1	39	18.9
	21년이상	41	17.3	8:2		51	24.7	
계	237	100	7:3	43		20.9		
전공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	14	5.9	6:4		21	10.2	
	만족	166	70.1	5:5	10	4.9		
	불만	51	21.5	4:6	10	4.9		
	아주 불만	6	2.5	계	206	100		
	계	237	100	연수에 대한 필요성	10일 이하	121	51.5	
연수에 대한 필요성	꼭 필요	94	40.0		11-20일	47	20.0	
	보통	122	51.9		21-30일	39	16.6	
	불필요	19	8.1		31일 이상	28	11.9	
	계	235	100		계	235	100	
	희망 연수 일수							

*: 중복 응답 가능

년의 박재옥²⁾등의 연구에서 73.4%의 교사가 26~40시간까지의 학습을 받고 있다고 한 사실과 비교해 보면 주간 수업시수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교사의 수업충실도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수업 담당학년은 1개 학년담당이 128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과 수업 이외의 업무로는 담임

(48.5%)과 학교의 일반 업무(43%)를 맡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강의와 실습 비율은 8:2가 조사대상자의 24.7%, 7:3이 20.9%, 9:1이 18.9%였고 강의만으로 수업한다는 경우도 15.5%나 되어 이론이 실습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교사는 91.9%

로 대부분의 교사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희망 연수 일수는 평균 24.5일 이었다.

2.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에 대해 그렇다(3점)에서 아니다(1점)까지의 3점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 각각 2.95와 2.94로 나타나 여교생들이 가정과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좀 더 실생활에 적용되는 교육, 실습중심의 교육을 원한다고 한 고현숙¹⁶⁾ 등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학생과 교사간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실천적·체험적,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교사들의 80%가 이론 : 실습 비율이 7:3이상의 이론위

<표 2>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N=237)

일반적인 의식	M	SD
1. 가정과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97	0.19
2.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2.95	0.27
3. 실천적, 체험적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94	0.30
4. 남녀가 협력하여 가정생활을 하게하는 것이다	2.90	0.35
5. 가정학 전공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2.88	0.43
6.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의식을 가지게 한다	2.85	0.45
7. 생활관 수업은 전임 담당교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2.83	0.50
8. 현재의 중·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문제점이 많다	2.76	0.57
9. 주제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나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75	0.56
10. 변화하는 사회나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2.69	0.67
11. 현재보다 실습시간이 늘어야 한다	2.67	0.67
12. 남녀가 같은 내용을 교육받아야 한다	2.64	0.72
13. 가정과 수업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학생들이 흥미로와 한다	2.36	0.81
14.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	1.96	0.56
15. 반드시 여교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74	0.87
16. 가정이라는 과목명은 바뀌는 것이 좋다	1.70	0.89
17. 남녀별로 다른 학습내용을 준비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56	0.86
18. 가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인수를 거치면 가르칠 수 있다	1.24	0.57

가정과 교육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가정과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로서 이는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정과의 단위배당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과는 달리 가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에서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한다'와 '실천적, 체험적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동섭¹⁷⁾등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과밀학급, 과대학급 등의 교육여건과 임시위주의 교육에서 지식의 습득보다는 탐구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시간소모적 수업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강의식 일제수업을 주로 한다고 밝힌 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과 교육은 '남녀가 협력하여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에는 2.90, '남녀가 같은 내용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2.64의 점수를 보였으나 '남녀별로 다른 학습내용을 준비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에는 1.56의 점수를 보여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남녀의 성별 구분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가정학 전공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2.88, '가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연수를 거치면 가르칠 수 있다'에는 1.24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정과의 단위 배당 시수가 줄어들어 따라 타교과의 전공자로 하여금 가정과 교육을 맡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부정 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은 '반드시 여교사가 실시하여야 한다'에도 1.74의 낮은 점수를 보여 가정과 교육은 가정학 전공자가 가르치되 전공자는 반드시 여자일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여 남녀 평등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최근 대학에서 남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비록 아직 소수이긴 하나 남학생이 가정학 관련학과에 입학하고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과 교육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의식을 가지게' 하며(2.85)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나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2.75), '변화하는 사회나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2.69)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중·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문제점이 많다'가 2.76, '현재보다 실습시간이 늘어야 한다'가 2.67로 나타나 중·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수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당 1~2시간(1학년: 2시간, 2학년: 1시간, 3학년: 1시간)의 수업시수로서는 기본적인 학습구조 만을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실습시간 간의 연계조차 어렵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원하고 있는 실습을 중심으로한 수업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짧은 시간에 주요 내용만 전달하는 식의 이론 중심의 수업에 치우칠 수 밖

에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정과 수업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학생들이 흥미로와 한다'는 2.36으로 평균점(2.49)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교과에 대한 인식이나 학습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¹¹⁾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내용 구성 및 학습지도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본다.

'가정이라는 과목명은 바뀌는 것이 좋다'는 1.70으로 대학에서의 명칭 개정 경향이 높은 것과는 달리 명칭 변경에 대한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효¹²⁾는 학문의 명칭은 학문을 대표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므로 명칭변경의 문제는 가정학의 정체성 뿐 아니라 나아가 가정학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마저 엿보이므로 대학편제로서의 명칭과 학문으로서의 명칭은 별개로 하여 가정학의 학문명칭과 가정학회의 명칭, 중고등학교의 가정교과목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본 조사에서의 가칭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인식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5점)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내용은 임신과 분만(4.62)이었고 다음으로는 질병과 영양관리(4.58), 인체와 영양소(4.54), 인간성장발달(4.51), 식품의 종류와 선택(4.48)·육아(4.48), 소비자 의사결정과 보호(4.39), 상차림과 식사예절(4.38), 가족의 형태와 기능(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내용은 정원꾸미기(3.44), 옷만들기와 수예(3.45), 가정생활과 지역사회(3.63), 주택관리와 영선(3.77), 가정기기의 구조와 정비(3.80), 주택설비와 시설(3.83) 등이었다.

또한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도는 3.63으로 앞으로의 가정학의 발전 방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대외활동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함께 발전하는 가정과 사회 건설에 적극 참여하

〈표 3〉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인식

교육과정 내용	M	SD	관련변인	
			연령	경력
1. 가족의 형태와 기능	4.36	0.69		..
2. 가족생활주기	3.99	0.72		.
3.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4.32	0.76		.
4. 가족복지	4.03	0.86
5. 가정법률	4.34	0.79		
6. 인간성장과 발달	4.51	0.60		
7. 임신과 분만	4.62	0.58		
8. 육아	4.48	0.78	.	.
9. 가정경제의 계획	4.25	0.67	.	..
10. 소비자 의사결정과 보호	4.39	0.71		
11. 직업과 진로	3.91	0.98
12. 가정자원의 관리와 재 활용	4.21	0.73		
13.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3.63	0.81
14. 가정기기의 구조와 정비	3.80	0.95		
15. 가정용품의 품질표시	4.09	0.78	.	..
16. 세금의 기초	3.88	0.81		.
17. 인체와 영양소	4.54	0.62		.
18. 질병과 영양관리	4.58	0.52		
19. 식품의 종류와 선택	4.48	0.59		
20. 식품의 가공 및 저장	4.17	0.74	.	..
21. 식사계획(식단)과 식사평가	4.25	0.72		
22. 상차림과 식사예절	4.38	0.64		
23. 문화와 식생활	3.95	0.76	..	.
24. 음식만들기와 음식쓰레기	4.33	0.62		
25. 인체생리와 의복	3.98	0.82		
26. 섬유(의복재료)	3.91	0.87	.	..
27. 의복디자인	3.93	0.81	.	.
28. 의복구매	4.10	0.83		
29. 옷만들기와 수예	3.45	1.05	.	.
30. 세탁 및 간수	4.12	0.72		
31. 의복기능	3.85	0.81
32. 옷차림	4.16	0.71	.	.
33. 각실의 기능과 주택설계	3.93	0.84	.	.
34. 주택설비와 시설	3.83	0.77	.	..
35. 실내장식과 가구	4.15	0.74		
36. 주택선택과 관련법규	4.01	0.87		..
37. 주택관리와 영선	3.77	0.78		
38. 정리와 수납	3.97	0.80		
39. 실내환경조절	4.05	0.73	.	.
40. 정원꾸미기	3.44	0.93

(N=237) ∴ p<0.01, ∴∴ p<0.001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²⁴⁾ 이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내용을 제6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발행된 현행 6종 가정 교과서의 단원 분류를 도입하여 요구도를 살펴 본다면, 식생활 관리(4.34) > 가족 생활(4.33)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4.02) > 의생활 관리(3.94) > 주거의 계획과 관리(3.89)의 순으로 나타나 김은주¹⁷⁾의 연구에서 가정 관리와 가정 경제, 아동 양육, 식생활, 의생활, 가족 관계, 주생활의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 보기 위해 고등학교 6종 교과서의 단원당 평균 지면 배분율²⁵⁾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관리적 측면에 교사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의 계획과 관리는 단원 평균 3.89점으로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인 특성중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연령과 교육경력으로, 연령과 교육 경력 양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내용을 단원별로 보면, 단원 I: 가족복지·육아, 단원 II: 가정 경제의 계획·직업과 진로·가정생활과 지역사회·가정용품의 품질표시, 단원 III: 식품의 가공 및 저장·문화와 식생활, 단원 IV: 섬유·의복디자인·옷만들기와 수예·의복기능·옷차림, 단원 V: 각 실의 기능과 주택설계·주택설비와 시설·실내환경조절·정원꾸미기 등 17개 항목으로 연령과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았고 그 외에 교육경력에만

<표 4> 고등학교 6종 가정 교과서의 단원당 평균 지면 배분율

단원	평균 지면수	지면 배분율(%)	순위
I. 가족 생활 · 가족 관계와 생활 설계 · 아동 발달과 부모의 역할	84.7 (40.2) (44.5)	23.9 (11.3) (12.6)	1
II. 가정 자원의 관리와 소비 생활	55.7	15.7	4
III. 식생활 관리	81.7	23.1	2
IV. 의생활 관리	77.3	21.8	3
V. 주거의 계획과 관리	54.8	15.5	5
계	354.2	100.0	

현행 교과서의 단원당 지면 배분율의 순서는 가족 생활>식생활 관리>의생활 관리>가정 자원의 관리와 소비 생활>주거의 계획과 관리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족 생활(단원 평균 4.33)과 식생활 관리(단원 평균 4.34)의 요구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과서보다 가정 자원의 관리와 소비 생활 단원(단원 평균 4.02)에 대한 요구도가 의생활 단원(단원 평균 3.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생활 단원 중 옷차림은 4.16, 세탁 및 간수는 4.12, 의복 구매가 4.10으로 전체 평균 요구도(4.1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실생활에서 기성복 이용이 보편화 됨으로써 의복 이론이나 옷만들기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내용은 가족의 형태와 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세금의 기초, 인체와 영양소, 상차림과 식사예절, 세탁 및 간수, 주택선택과 관련법규 및 주택관리와 영선 등의 9개 항목이다.

4.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남녀가 같이 배울 경우와 여학생만 배울 경우의 두 경우로 나누어 중점을 두어야 할 순으로 3항목을 선택하게 한 후 1순위를 집계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

교육 내용	남녀		여	
	순위	N(%)	순위	N(%)
1. 결혼(성)이나 자녀, 노인문제 등 인간에 관한 지식과 이해	1	86(37.1)	1	75(32.5)
2.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생활능력	2	51(22.0)	2	50(21.6)
3.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기술	3	36(15.5)	3	47(20.3)
4. 가정생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	4	31(13.3)	4	31(13.4)
5. 일상 생활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	5	22(9.5)	5	23(10.0)
6.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와 이를 대처해 나가는 태도	6	3(1.3)	6	3(1.3)
7.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	6	3(1.3)	7	2(0.9)
계		232(100.0)		231(100.0)

남녀가 같이 배울 경우와 여학생만 배울 경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정과 교사들이 생각한 내용은 두 경우 모두 같이 일반적인 의식에서 학습 내용 구성에 남녀 성별구분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경향과 일치하였으며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간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각각 37.1%와 32.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상 생활의 생활능력, 기본적인 생활기술, 가정생활 문제에 대한 주체적 해결 태도, 과학적인 지식의 순위였고,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 대처 태도와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의 중시도는 낮았다.

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임신과 분만, 질병과 영양관리, 인체와 영양소, 인간성장과 발달 등 인간에 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 나타났고, 낮은 요구도를 보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등의 내용은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있어서도 낮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21세기에 실시되어야 할 가정과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계획 수립에 기초가 될 자료를 제공하고 자 237명의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대부분의 가정과 교사가 전공과목에 만족하고 있었고(76%) 연수의 필요성(91.9%)을 느끼고 있었다. 주당 수업시수는 17.6시간이었고 대부분 교사(80%)의 수업방법이 이론위주의 수업에 치우치고 있었다.

2) 가정과 교사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을 보면 학교교육에서 가정과 교육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습득한 지식과 기능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실천적·체험적 학습이 되어야 하는 것에 중요성을 많이 부과하고 있었다. '가정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르칠 수 있다', '남녀별로 다른 학습내용을 준비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와 '가정과목의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낮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3) 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내용은 임신과 분만이었고 다음으로는 질병과 영양관리, 인체와 영양소, 인간성장과 발달 및 식품의 종류와 선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원꾸미기, 옷만들기와 수예,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주택관리와 영선, 가정 기기의 구조와 정비 등의 요구도는 낮았다. 단원별로는 식생활관리, 가족 생활, 가정 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의생활, 주거의 계획과 관리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4)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일상생활의 능력, 기본적인 생활기술, 가정생활 문제의 해결 태도, 과학적인 지식 등의 순위였고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의 해결 태도와 소비 생

활에 관한 지식에 대한 비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에 이르러 가정학계에서는 가정학의 전문적인 분화와 전체적인 통합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편 가정학의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학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사들은 정체감의 위기의식을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가정과 교육을 세분화된 가지나 열매로 본다면 초·중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그 뿌리와 줄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듯이 초·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의 정상화없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변 상황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와 가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및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가정과 교사들의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가정과 교육이 실천적, 체험적 학습임을 고려할 때 보다 바람직한 가정과 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실습 및 교육 시수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부나 교육전문가 및 교육행정이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가정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5.
- 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5.
- 3) 김정숙, 안지연, 한재숙, 개정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내용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논문집, 15(1), 1996, 105-112.
- 4) 윤인경,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국제 비교 연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89, 33-42.
- 5) 이연숙, 중·고등학교 가정관리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 가정과교사, 전공교수의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47-61.
- 6) Kliever, C. J., The role of consumer education in foods curricula as perceived by home economics teacher in Colorado. Ed.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1978.
- 7) 이영숙, 김태선, 한재숙, 고등학교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 논문집, 11(1), 1992, 125-132.
- 8) 손원교, 효과적인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위한 교재연구의 필요성-피복영역의 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89, 63-85.
- 9) 성화경,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 내용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1994, 61-72.
- 10) 김혜진, 중학교 교사의 가정과 의생활 내용에 대한 학습 요구도와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 11) 이은순, 주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중학교 가정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2.
- 12) 이강분, 최목화,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1994, 59-71.
- 13) 최창숙, 조재순, 고등학교 가정교사용 지도서의 주생활 영역에 대한 교사의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995, 103-112.
- 14) 성영애, 이기춘, 소비자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3, 1988, 11-24.
- 15) 이기춘, 서정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소비자교육의 강화방안-소비자교육 관련교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1992, 237-247.
- 16) 고현숙, 김기남,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

- 정과교육학회지, 1(1), 1989, 19-31.
- 17) 김은주,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여고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상업계, 인문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8) 임애용, 윤인경,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1994, 73-92.
 - 19) 竹田美知, 官澤モリエ, 北口照美, 太田さち, 田中十一子, 家庭科教育に對する認識と評價, 家政學研究, 33(2), 1987, 171-178.
 - 20) Toffler, A.,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 Co., 1980.
 - 21) William, H. Gates III, *The Road Ahead*. Sam seong Publishing Co., 1995.
 - 22) Horn, Marilyn, *Home Economics: A Recitation of Definition*. J. of Home Economics Spring, 1981, 19-22.
 - 23) 문수재, 이기열,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181-198.
 - 24) 박재옥, 이남기, 김신자,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실제와 교사의 가정 및 개인생활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18(4), 1980, 47-63.
 - 25) 박덕규, 교원정책에 관한 교원의 의견조사. 교육월보, 165, 1995, 80-85.
 - 26) 진동섭, 정수현, 한국·미국·일본의 교사 문화 비교 연구. 교육월보, 161, 1995, 52-59.
 - 27) 유가효, 교육 개혁과 가정학의 미래.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31-41.